

OG6) '콩쥐팥쥐 동화마을' 입지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신상섭*, 노재현, 김현욱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1. 서 론

현대 관광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라보는 단순한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 풍요를 중요시하는 가치관과 문화 욕구가 증대되어 독특한 지역문화에 대한 재평가와 발굴·복원·전승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장성수·김관모, 2005).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과 영화 등의 배경무대를 테마공원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 이벤트로 상품화하고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현 추세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고대 소설 춘향전을 주제로 한 춘향테마파크(남원시), 관음사 연기설화를 바탕으로 한 효녀심청공원(곡성군), 흥부출생지(박첨지 설화)와 발복지(춘보설화)를 배경으로 한 흥부마을 조성(남원시), 홍길동 생가 복원(장성군), 변강쇠가(가주지기 타령)로 알려진 판소리를 모티브로 한 변강쇠 백장공원(남원시) 등 고전 소설의 작품 배경뿐만 아니라 근대 소설인 토지(토지 문학공원), 메밀꽃 필 무렵(메밀꽃랜드), 혼불(혼불 문학공원) 등에 이르기까지 소설의 무대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학작품 연구지를 해당 시·군에서 선점하려고 하는 경쟁은 신라의 거문고 명인인 우륵의 탄생지를 두고 경남 거창군과 의령군의 확보 논란이 가열되는가 하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콩쥐 팥쥐 배경마을 또한 전북 완주군과 김제시의 갈등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문헌 근거의 불충분, 객관적인 고증 과정의 간과, 또는 문화자원 소재 선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시욕과 조바심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와 같은 갈등과 분쟁은 문화관광자원의 소재 개발과 테마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浦島太郎說話 배경무대 확정을 위한 고고학적·역사지리학적 고증(段熙麟, 2004)이 정착되고 있는 단계이며, 우리의 경우에도 문화자원 소재 발굴에 역사지리학적 고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문학작품 배경마을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고증방법을 통해 입지 타당성 확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 대상지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완주군의 갈등이 발생된 콩쥐팥쥐 배경마을로 선정하였다.

특히, 콩쥐팥쥐전은 한국의 대표적 권선징악형 고전소설로서 첫머리에 지역 명칭이 명시되고 있어 공간적 배경에 대한 주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자료의 역사지리학적 고증과정을 통해 콩쥐팥쥐전의 배경공간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구체화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최초의 콩쥐팥쥐 소설본으로 알려진 1919년 발간, 大昌書院版 <大鼠豆鼠(콩쥐팥쥐)傳>과 ‘신증 동국여지승람’ 등의 사료를 기본 자료로 관련 지명, 배경마을의 지형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씨 등에 관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역사지리학적 고증은 내용 분석을 통해 밝혀진 지명, 성씨 등에 관한 사실 여부를 대동여지도, 동여도, 전주부도 등과 근래에 발간된 행정도면 및 현장 정황을 통해 소설에 등장하는 명칭과의 상관성, 유사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콩쥐팥쥐 배경마을의 입지타당성 확보는 물론 공간적 정황 등을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콩쥐팥쥐전 관련 공간의 명칭과 정황조사

콩쥐팥쥐전(大昌書院, 1919) 원문에 나타난 공간적 명칭과 정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Table 1. 콩쥐팥쥐전 원문에 나타나는 공간 명칭과 정황

공간 명칭	공간 정황
- 전라도 전주 서문밖 30리허	
- 콩쥐가 밭을 맨 자갈밭, 모래밭	- 팥쥐에게는 쇠호미를 주어 집 근처 모래밭을 매게 하고, 콩쥐에게는 나무호미를 주어 산비탈에 있는 돌사다밭(자갈밭)을 매게 하는 것이었다.
- 콩쥐가 휴식한 상탕, 중탕, 하탕 개울 (하늘에서 내려온 검은소의 도움)	- 하탕에 가서 발 씻고, 중탕에 가서 손 씻고, 상탕에 가서 낮 씻고 오너라.
- 소에게서 얻은 과일: 밤, 대추, 굴, 은행, 호도, 룡안, 예지, 등	
- 산계곡과 개울 등 공간	- 콩쥐는 건넌마을 외갓집 잔치를 보러 가는데, 때는 바야흐로 춘삼월 좋은 계절이라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이 모두 스스로 웃기를 마지아니하고 ...시냇가에 다다르니 물도 맑고 고기가 때 지어 노니는 것이 볼 만하였다.
- 전라감사 행차로	- 감사가 도입하는 행차가 위의를 갖추어 오느라고 벽체 소리를 지르면 잠인을 치우는 바람에 콩쥐는 허겁지겁 시냇물을 뛰어 건너려다 그만 잘못하여 신 한 짝을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무섭고 다급한 마음에 콩쥐는 감히 신을 건져 보려고도 하지 못한 채 외가로 달려갔다.
- 콩쥐가 신을 잃은 개울	

4. 등장인물 분석

‘콩쥐팥쥐전’에는 총 4명의 성씨와 1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콩쥐의 부친(최만춘), 모친(조씨; 외가), 계모(배씨), 전라감사(김씨) 등이다. 이러한 성씨 관련 내용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지리지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할 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내용이 가장 구체적이다.

5. 결 론

‘콩쥐팥쥐전’ 관련 지명과 등장인물 그리고 고지도 자료 분석 및 배경공간에 대한 지리적 정황 검토를 통해 배경마을로 판단되는 「전주 서문 밖 30리」는 현재의 완주군 이서면 앵곡마을 일대로 파악되는 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530년(중종 25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전주부읍지’ 및 1895년경 간행된 ‘호남읍지’ 등에 당시 전주부 방면 서쪽으로 이서면 지역이 35리까지 전주부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앵곡역 일대(현 완주군 이서면 앵곡마을)가 전주 서문 밖 30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나타나 있다.

둘째, 1834년(순조 34) 金正浩 선생의 ‘靑邱圖’, 1860년경 간행된 ‘東輿圖’, ‘大東輿地圖’ 등의 고지도에 행정구역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전주 서쪽 앵곡역을 포함한 지역이 전주의 행정영역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셋째, 1872년 제작된 ‘全州府圖’에서 전주 서문밖 30리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서면 일대이며 35리까지가 전주의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서면 앵곡마을 일대가 30리에 해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콩쥐팥쥐전’의 배경마을을 유추할 수 있는 지명 가운데 주목되는 팔죽이방죽(두죽제)은 ‘호남읍지’ 完山府의 堤堰에 豆粥堤로 나타나 있다. 즉, 두죽제는 “전주의 행정영역에 속한 제언이며, 府의 서쪽 30리에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전주 서문 밖 30리에 해당하는 앵곡마을의 위치와 동일한데, 현재 두죽제는 앵곡마을과 신월마을 사이에 자리하여 중요한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콩쥐팥쥐전’ 관련 지명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호남읍지’ 완산부에 현재 이서면의 이성폐현은 본래 백제의 豆伊縣으로 콩 豆字를 쓰는 지명이 보이며, 역시 주변의 利城지역에 豆毛村所라는 고지명이 보이고 있어 이 일대에 콩 豆자를 쓰는 지명이 집중되고 있다.

또, 소설에 등장하는 소를 연상시키는 쇠아치골이란 지명 또한 앵곡마을에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 은교마을에 존재하고 있다.

여섯째, 등장인물과 관련된 성씨는 최씨, 조씨, 배씨인데 콩쥐의 부친 최만춘은 가공의 인물로 당시 가장 유명한 전주 최씨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親母인 조씨와 계모(팥쥐엄마) 배씨의 성씨 집단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호남읍지’에 전주부의 성씨로서 이서를 포괄하는 이성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토착성씨로 수 백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등 등장인물의 지역성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곱째, 앵곡마을이 위치한 지리적 정황은 모악산 산줄기가 평야와 연결되는 절절점으로 산계곡과 계류수가 있는 개울 및 사람들의 내왕이 빈번한 곳으로서 소설에 등장하는 공간

적 정황과도 적절하게 일치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콩쥐팍쥐전'의 저자는 이와 같은 앵곡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간 및 인물 정황을 바탕으로 콩쥐팍쥐전을 저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 고 문 헌

김정호, 1860, 동여도.

김정호, 1861, 대동여지도.

신상섭, 2000, 전통마을 공간구성에 작용된 환경설계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8(1).

신상섭, 허준, 노재현, 2002, 전통마을 경관 보전에 관한 정책대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2).

신상섭, 2004, 전통정주지의 환경적 건전성과 지속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1).

전주부도, 1872.

전주부읍지, 편년미상.

청구도, 1834.

콩쥐팍쥐동화마을 기본계획, 2005,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콩쥐팍쥐전, 1919, 대창서원.

호남읍지, 1895.